

## ‘스바냐 2 장, ‘여호와와 그의 날에 있음 심판 2 – 이방에 대한 심판’

### ➤ 들어가기

본 장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속히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하시며,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욕했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

### 1. 스바냐 선지자의 권고 => ‘여호와와 그의 날이 임하기 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!’ (1-3 절)

1)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, 곧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합니다!

#### ▪ 1-2 절 주목!

‘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.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,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,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’

①. 우선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‘수치를 모르는 백성’이라 칭하며 책망!

a.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그 동안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, 그저 외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던 것을 책망한 것!

-> 예레미야 6 장 15 절

‘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.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’

b.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은 점점 더 무디어지고,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!

②. 이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날을 3 가지로 강조하면서 회개의 급박함을 권고함!

a. 명령이 시행되어, ‘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’, ‘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’, ‘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’

-> 3 가지 표현 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나타나는 한 때, 곧 심판의 때를 강조함!

=> 결국 자신을 통해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, 회개할 것을 간절하게 권고하고 있음!!

2) 스바냐 선지자는 ‘수치를 모르는 백성들’과 대조되는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권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.

#### ▪ 3 절 주목!

‘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흑시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’

- ①. 우선 ‘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’은 누구인가?
  - >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,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 땅 살고자 힘쓰는 참 신앙자들!
  
- ②. 스바냐 선지자는 이 경건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쳤나?
  - a. 끝까지 ‘**여호와를 찾고,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**’ 가르침!
  - b. 그럼! ‘너희가 **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**’ 가르침!!
    - > 참고로 ‘혹시’란 단어가 마치 불확실성의 의미를 담은 듯 보이지만 오해하지 말 것!
    - > 이 표현은 ‘그럼에도 불구하고’ 곧 앞에서 말한 그런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임한다 하더라도 ‘**아마 너희는 숨김을 얻을 것**’이란 의미!!
    - >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증거!
    - =>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,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고자 힘쓰자!

## 2.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! (4-15 절)

### 1) 블레셋에 대한 심판! (4-7 절)

- 먼저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?
  - ①. 우선 블레셋 족속은 팔레스타인 서남부 지방, 곧 지중해 연안에 거주한 그레데 섬에서 온 족속으로 5 개 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던 연방국가! (창 10,14, 렘 47:4, 암 9:7)
    - 블레셋의 5 대 도시 => 북쪽부터 에그론, 아스돗, 아스글론, 가드, 가사
  - ②. 저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가장 대표적인 족속!
    -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때는 사사 시대부터! (삿 10-16 장)
    - 대표적인 악행 2 가지만 예로 들면,
      - a. 엘리 제사장 때,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감! (삼상 5 장)
      - b. 여호람 왕 때,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과 성전의 제물들을 약탈해 감! (역대하 21 장)
  
- 그럼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 족속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나?
  - ①. 4 절 주목! => ‘가사는 **버림을 당하며**, 아스글론은 **폐허가 되며**, 아스돗은 **대낮에 쫓겨나며**, 에그론은 **뽕히리라**’
    - a. 곧, ‘버림 당하고, 폐허가 되고, 쫓겨나고, 뽕힐 것!’ =>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심!!
      - > 이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취됨!
  
    - b. 그런데 4 절 보면 블레셋을 대표하던 가장 강한 성이 언급되지 않음! 어디? \_\_\_\_\_
      - => Why? 스바냐 시대(B.C. 627-626)엔 이미 \_\_\_\_\_ 때문!!
      - 다윗 = 가드 사람을 천부장으로 둬! // 유다 왕 웃시야 = 가드 성벽을 무너뜨림!
      - 앗수르왕 사르곤 2 세 = B.C 715 년 팔레스타인 침공 => 이후 성경엔 언급되지 않음!!

②. 5 절 주목!

‘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를  
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’

a. 블레셋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‘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도 화가 미칠 것’이라 예언!

=> Why? => ‘그렛 족속’은 블레셋과 국경을 같이 두고 살았던 족속!

따라서 저들은 늘 블레셋과 뜻을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에 자주 동참함!!

b.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친구 따라 은혜 받는 곳만 가는 성도되자!!

③. 6-7 절 주목!

‘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, 그 지경은 유다  
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.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 
집들에 누우리니,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 
것임이라’

a. ‘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있을 것’이라 예언!!

=> 완전한 Up & Down 의 변화!!

b. 특히 모든 지경이 다 ‘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’ 이라 예언!!

=> Why? =>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사,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!

=>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을 예언!!

2)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! (8-11 절)

▪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?

①. 아브라함의 조카 \_\_\_의 두 딸 중 장녀가 낳은 아들 모압의 후손으로, 사해 동편 고원지대에  
거주했던 민족

②.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압 땅을 지나가려 할 때, 이것을 거절하며 막았을  
뿐만 아니라,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던 왕!

▪ 암몬은 어떤 나라인가?

①. 룻의 작은 딸이 낳은 ‘벤암미’의 후손으로, 요단 강 동편 곧 압복 강 상류에 거주한 민족!

②. 저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에돔과 함께 유대를 침략하였고, 길르앗을 침략하여  
잔인한 살육을 행했던 민족!!

▪ 그럼 하나님은 이 두 족속 곧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나?

①. 8 절 주목!

‘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 
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’

- a.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말들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시며, 저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며 경계를 넘어 침략하여 살육과 약탈을 행한 죄를 지적!!
  - 이것은 오래전 출애굽 때의 일부터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까지 저들의 행한 모든 죄 종합해 지적하신 것! => 결국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밝히신 것!!

②. 9-10 절 주목!

‘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.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,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찢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,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.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백성을 훼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’

- a. ‘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’ ‘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’ 주목!
  - => 이것은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단을 강조하며 나타내신 것!
- b. 그럼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인가?
  - => 고돔과 고모라 같이 황폐한 땅으로 만드실 것!! => 완전한 폐망을 예언!!
  - =>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저들의 모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!!
- c. 그런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블레셋과 비교해 보자!! 엄청난 진노와 분노의 마음이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닌가? Why?
  - =>

3) 구스에 대한 심판! (12 절)

- 우선 12 절 주목! => ‘구스 사람들과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’
- 그럼 구스는 어떤 나라인가?
  - ①. 구스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,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나라! - 애굽 남쪽 동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함!
  - ②. 그런데 스바냐는 사실 구스에 대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진 않다는 것!!
    - => 단지 저들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심판만을 예언!!
  - ③. Why?

4) 앗수르에 대한 심판! (13-15 절)

- 앗수르는 어떤 나라인가?
  - ①. 앗수르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그 수도는 니느웨 성이었음!
  - ②. 앗수르의 조상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로 티그리스,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바벨론 북쪽에 자리를 잡고 중동 지방을 다스렸던 민족!

③. 저들은 다윗 왕 시대에 극도로 쇠약해졌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며 쇠약해진 기간 수도를 니느웨로 옮긴 후 점점 더 그 세력이 강해진 후,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됨!

■ 그럼 하나님은 이 앗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나?

①. 13-14 절 주목!

‘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앗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, 사막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.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’

a. ‘사막같이 메마르게’ 하실 것이란 표현을 통해 앗수르가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!

=>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, 각종 짐승들만 있는 땅으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!!

②. 15 절 주목!

‘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, 마음속에 이르기를,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었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’

✓ 하나님은 앗수르의 죄를 단편적으로 지적하시기 보다는 저들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교만과 불신앙을 지적하시며 심판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음!!

a. ‘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!’

=> 곧 니느웨 성의 부귀 영화만을 자랑하며 안일함에 빠져 살던 민족!!

b. ‘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!’

=>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며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뜻만을 위해 범죄하며 살던 살던 민족!!

=> 결국 이런 앗수르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거부하며 자신만을 위해 온갖 죄를 범하며 사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불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것!!

❖ 오늘 내용을 묵상하며 새로 깨달거나 결단한 것이 있다면?

❖ 중보기도 제목나눔